



이 밖에도 특허청은 이번 ASEAN+1 고위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필리핀, 베트남, 브루나이와 고위급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여 ASEAN 개별국과의 양자 협력도 함께 진행하였다. 특히, 필리핀과는 지식재산 전 분야의 협력 확대를 다짐하는 ‘포괄적 지재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’를 체결하였다.

특허청 김태만 차장은 “한-ASEAN 지재산 협력이 앞으로 본격화 된다면, 이 지역의 지재산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ASEAN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산 보호가 강화되는 상생협력이 가능할 것”이라고 전망하면서, “지재산 협력이 한-ASEAN 미래공동체 구상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❖ 김태만 특허청 차장(왼쪽 4번째)이 한-ASEAN 고위급 회의 직후 데데 미아 유산티(Dede Mia Yusanti) 아세안지재권협의회(AWGIPC) 의장(왼쪽 5번째), 샤리나 유소프 칸(Shahrinah Yusof Khan) 브루나이 특허청장(앞줄 오른쪽 2번째), 리녹남(Le Ngoc Lam) 베트남 특허청 차장(뒷줄 왼쪽 2번째) 등 각국 수석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

❖ 한-아세안 지재권 협력 고위급 회의장 전경